

한라시론



김양훈 프리랜서 작가

살짜곰보의 꾸지람

한여름 내뿜는데도 숲이 울창해 산길은 어두웠다. 배엽이 지나간 듯 이어지는 꼬부랑길에는 도체비꽃이 만발했다. 안내원과 함께 한참 산길을 가다 물장오리 아래에서 진수내(川尾川) 졸기를 만났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냇바닥을 노루처럼 내달려 건너편 숲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가쁜 숨을 들리며 조릿대 덩굴 앞을 바라보니 하얀 꽃길에 달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틀낭에서 떨어진 꽃눈개비가 만들어 낸 조화였다. 4·3 봉기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난 7월 어느 날, 아지트에서 은신한 이덕구 선

생을 찾아가는 조천중학원의 김민주 학생의 발길은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허공에 떠 있었다. 이 묘사는 여섯 해 전 '이덕구 산전'을 찾아가며 느꼈던 풍경을 김민주 학생의 입산 모습인 양 상상해 본 것이다.

교토의 리쓰메이칸대학 재학 중 학병으로 끌려가 관동군 소좌로 해방을 맞고 귀향한 이덕구는 조천중학원에서 역사와 사회, 체육 과목을 가르쳤다. 살짜곰보 이덕구는 체구가 훗날 훗날 호남형이었다. 체육대회 때는 응원단장을 자임해 삼삼칠 박수를 이끌며 학생들과 어깨도 걸었다. '덕구 덕구 이덕구 박박 엮은 그 얼굴'이란 노래가 학생들 사이에서 불렸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는 3·1사건 직후 경찰의 고문으로 고막이 터지는 상처를 입었다. 감옥을 나와 다시 교단에 섰지만 곧 이어진 8·15검거 선봉에 자취를 감춰야 했

다. 마지막 수업시간에 육지로 떠난다고 말했지만 그는 산으로 들어갔다. 이후 교사와 학생들이 수시로 경찰서에 붙잡혀 가는 와중에 학생 회장인 김용철 치사사건이 터졌다.

여름옷을 걸치고 입산한 제자는 다섯 달 후에야 스승을 만날 수 있었다. 12월의 한라산은 모진 바람이 몰아치는 눈발 세상이었다. "나는 집에서 가만히 공부하지 왜 이런 데 왔느냐"며 스승은 환영 대신 제자를 나무랐다. 걱정과 애정이 담긴 꾸지람이었다.

이듬해 6월 7일, 이덕구 사령관은 시안모루 지경 '복발진발'에서 토벌대의 집중사격에 쓰러졌다. 부인과 다섯 살 아들 진우, 두 살배기 딸은 물론 친척들도 대부분 4·3 와중에 목숨을 잃었다. 아들 진우가 울며 달려달라고 하자 경찰관은 "아버지 있는 산으로 달아나라"고

하고는 산을 향해 뛰어가는 그를 쏘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십자가에 묶여 관덕정 광장에 전시된 이덕구의 시신은 때 절은 일본군 비행복에 입가에 피를 흘린 채였고, 그를 조롱하기 위해 웃웃 주머니에 수저를 꼽아 넣었다. 이후 경찰은 생포돼 조사받던 그의 부하들을 시켜 호수된 머리를 전봇대에 매달았다. 이 일이 끝나자 당국은 시신을 남수각 냇가에서 화장했고, 유골은 다음 날 큰비가 내리는 바람에 바다로 떠내려갔다고 발표했다. 죽음에 대한 예의는 없었다.

스승의 귀종 때문이었을까. 제자는 하산한 후 일본으로 망향해 오현중학교의 역사교사였던 김봉현과 함께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라는 책을 내었다. 누구라도 그러한 스승이라면 평생을 안고 살았으리라. 곧 스승의 날이다.

사설

제주도정, 핵심 공공기관 유치 사활걸라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재외동포청 유치가 결국 무산됐다.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도민사회는 박탈감과 함께 오영훈 도정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인천으로 결정했다. 재외동포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결정이란 국정의 설명이다. 그동안 제주에선 '재외동포청 제주 서귀포 사수 범국민운동본부'를 꾸려 제주유치에 고군분투했다. 업무 연속성 유지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내세워 제주 준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가세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 제주 홀대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제주 홀대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제주 홀대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제주 홀대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있었던 제주도정은 뒤늦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목표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도정에 대한 불신과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공공기관 유치를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핵심기관을 유치하기로 하고 대중교통 철도를 강화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유치 무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주도정은 핵심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제주특별회 참석에 예상되는 만큼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제주 관광청 신설 등 제주공약 이행과 현안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편집국 25시

제주신화월드 내 대형마트 지역상생은



이대운 정치부 차장 lty9456@halla.com

제주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면서 제주신화월드 내에 참고형 대형마트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단지 내 상가시설 및 휴양·문화시설, 운동 오락시설 등 세부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신화역사공원 R지구 2곳에 분산돼 있던 상가시설을 H지구 1곳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통합 이후 외국계 기업의 참고형 대형마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

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화월드 측은 외국계 참고형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지역 마을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지역수용성 확보 방안 등 5가지 사항을 사업자 선정시 반영하고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행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역 농·축협 등이 지역상권의 붕괴를 우려, 해당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대형마트 입점을 반기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 서부지역에는 제주시내와 서귀포시내와 달리 대형마트가 없어 쇼핑등을 위해서는 30분에서 1시간 가량 시내로 나가야 하는 생활 불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신화월드 측이 지역상생 협의를 어떻게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in

제주 해외 건설시장 진출 방안 모색

공적개발원조사업 등 참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키로 해 주목.

제주자치도는 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해외건설협회,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ODA사업지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참여, 해외건설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

양창환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앞으로 건설물량 확보와 함께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6월 7일 제주월드센터에서 해외건설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언급.

민방위의 날 차량 통제 없다

○...제주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 실시되는 제41차 민방위의 날 훈련이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를 중심으로 변경해 진행된다"고 발표.

이 자료에서 제주시는 "장기간 중단되었던 민방위의 날 훈련을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국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축소 운영하기로 하고 추후 보완 사항을 발굴해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당초 9일 내놓은 훈련 계획에 포함됐던 일반 주민 대피와 차량 이동 통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

제주시 측은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축소해 진행되는 만큼 작오가 없길 바란다"고 점언. 전선회차

도민 안전 지키는 '현장 대응단'

제주소방이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현장 대응단'을 본격 출범시켰다.

도내 4개 소방서에 대한 조직 개편을 통해 대응단을 꾸렸다. 그동안 소방서 현장대응과에서 소방 행정과 현장 출동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행정 기능을 분리하고 현장 대응단이 재난현장 대응과 지휘를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또 지휘탑장과 119센터장의 직급이 같았던 것을 현장대응단장 1계급 상향해 보다 체계적인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했다.

제주소방이 현장 대응단을 출범시킨 것은 '도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제주지역은 하루 평균 출동건수 246건으로 6분에 한 번꼴로 출동하는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다. 119는 도민들 안전의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그간 역할을 충실히 했다. 따라서 이번 출범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 일수 있다. 제주소방이 과거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임해 달라는 도민들의 당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단은 시행 초기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속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현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당국은 현장 대응단의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지원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현장 대응단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본다. 도민들도 대응단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끔 격려와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밀양손씨 영신(아산종합건설 회장·향년 6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3년 5월 11일
아들 현우송 며느리 권경진
우택 김지수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석진(前 625 참전유공자회 제주도지부장·향년 91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3년 5월 11일
아들 강창재 며느리 고정숙
장림 김순선
장소 박지정
장균 원계선
남 강창유
인희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공농원 임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출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지(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습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습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주소장 ☎ 010-7305-7819 제주특약이